



순창군이 고추장 등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전국 최고의 매력있는 관광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순창, 우수 특산물 '전국서 인정'

군, 고추장 등 지역의 전통 자원 활용·관광산업 활성화 등 높은 평가 받아

순창군이 고추장 등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전국 최고의 매력있는 관광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군은 문화마케팅연구소가 주최하고 트래블이아가 주관한 2016년 트래블이아 어워즈 우수특산물 부문에 순창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지난해에 이은 2번째 연속 수상이다. 트래블이아 어워즈는 지자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문화마케팅연구소가 2015년 11월부터 올해 10까지 관광 정보 플랫폼에 등재된 여행정보 총량과 콘텐츠 호감도를 바탕으로 8개 부문을 평가한 것이다. 문화마케팅연구소는 전국 229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번

평가를 실시했으며 지역호감도라는 성과 지표를 수치화한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1차 전략적 평가 후 관광분야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2차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진행해 상의 객관성을 더했다. 순창군은 특히 고추장 등 지역의 전통 자원을 활용해 관광산업을 활성화 시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특산물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군은 전통기능인들이 중심이 된 순창전통고추장 민속마을을 조성해 관광지화와 하고 순창의 대표 관광지인 강천산과 연계한 관광코스도 인기를 끌고 있다. 또 현대인들이 전통장을 쉽고 재미

있게 체험할 수 있는 장류체험관과 옹기체험관을 운영해 해마다 1만5,000명 정도의 체험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특히 장류연구소, 발효미생물진흥원 등에서는 다양한 기능성 장류제품을 개발해 산업화 하는 것은 물론 관광산업과도 연계하는 등 농특산물을 활용한 산업관광 추진에서도 성과를 인정 받았다. 황숙주 군수는 "순창군은 고추장 등 장류부문에 국내 최고의 브랜드 파워를 자랑하고 있는 지역이다"면서 "앞으로 장류는 물론 지역의 다양한 농특산물을 관광과 연계해 관광산업이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연말연시 희망 나눔캠페인 전개

시청 주민복지과등 접수창구 개설... 사업안내·모금활동·각종 홍보 등 실시

남원시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나의 기부 가장 착한 선물'이라는 슬로건 아래 다가오는 한과 속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연말연시 '희망2017나눔캠페인'을 2016년 11월 21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 72일간 전개한다. 남원시는 성공작업 캠페인을 위해 시청 주민복지과·읍면동 주민센터·관내 언론사에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사업안내, 모금활동, 각종 홍보 등을 적극 실시하여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

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모금사업팀과 배부사업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금사업팀에서는 개인모금, 기업모금 등 모금 캠페인을 통해 적극 모금활동을 하고 배부사업팀에서는 모금액을 각시군구에 공평하게 배분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사회복지서비스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 남원시는 매년 모금액 이상의 금액을 모금회로부터 배부받고 있다.

한편, 남원시는 '희망2016나눔캠페인'에서 2억6,100만원을 모금하고, 기획사업으로 2억1,000만원, 지정기탁사업으로 1억6,000만원, 긴급지원사업으로 6,900만원, 기타지원사업으로 2억8,000만원 등 총 7억2,700만원을 배부받아 어려운 이웃과 시설 등에 지원 하였고, 올해에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여 보다 많은 배부금을 받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베리&바이오연구소, 가공분야 전문인력 교육 수료식

(재)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이사장 박우정 고창군수)가 푸드테라피 구축을 위한 가공분야 전문인력 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 15일 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료식은 박우정 군수, 고창 관내 가공업체 대표, 수료생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연구소는 지난 달부터 푸드테라피와 가공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제품 개발을 위한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식품을 통해 치유하고자 하는 푸드테라피와 소비자의 트렌드 변

화에 맞춰 고창군 내에서 식품가공사업에 종사하는 가족농들이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국내외 6차 산업의 현황과 성공전략, 농산물 가공과 연계된 농가맛집 운영전략, 고객 유치전략, 가공식품 포장·디자인·브랜드 전략,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가공품의 R&D 및 홍보마케팅 등 식품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무방안 등에 대한 교육이 함께 이뤄졌다. 아울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영체의 사례발표를 통해 교육생들이 많은 고

민을 갖고 있는 마케팅과 유통부문에 집중, 이론 및 실습·견학 등 교육일정을 진행했으며 90%의 높은 수료율을 보이며 최종 82명이 수료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교육과정에 적극적이고 모범적인 수료생 5명에게 모범상을 수여해 교육생의 사기를 진작시켰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푸드테라피 구축을 위한 가공분야 전문인력 교육을 계기로 우리지역 고품질 농산물을 소재로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독자적인 푸드테라피를 구축하여 6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군, 이도리 중심 보행환경 개선사업 실시

임실군은 보행자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해 임실을 이도리를 중심으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임실을 이도리 일대는 터미널과 시장 등이 소재하고 있어 혼잡한 지역으로 특히 5월경이 열리는 낙은 차림과 보행자가 무질서하게 뛰어들어 통행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군은 그동안 기본계획 용역과 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의 준비 끝에 행정부 보행환경개선 사업공모에 선정돼 국비 10억원을 지원받는 쾌거를 거뒀다. 이에 군비 1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총 사업비 20억원으로 이도리 일대 15개 노선 2.6km를 대상으로 오는 2017년 6월 완료를 목표로 공사가 한

창이다. 이에 앞서 오수면과 관촌면 소재지 2개 노선 800m를 대상으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지난 8월 완료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과 병행해 전선 및 통신선로 지중화 사업을 실시할 것"이라며 "깨끗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내내에도 보행로 정비 사업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창군,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 대회

두 손 합장 대목 부른 황시원 어린이 대상 수상

어린이 판소리 부문 최고의 등용문인 '제29회 전국어린이 판소리 왕중왕 대회'가 고창군에서 열렸다. 전국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 대회는 차세대 어린이 판소리 명창을 발굴 육성하고 판소리 여섯바탕을 집대성한 동리 신재호 선생의 문화예술사적 업적을 기념하며 유업을 계승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대회는 고창군과 KBS전주방송총국이 주최하고 (사)동리문화사업회가 주관해 해를 거듭할수록 그 명성을 높여가고 있다. 지난 13일 동리국악당에서 열린 예선에서는 전국의 내로라하는 30명의 소리 쏘나무들이 열띤 경연을 펼쳐 장내를 뜨겁게 달궜다. 치열한 예선을 거쳐 14일 동리국악당에서 열린 본선에서는 7명이 경연을 펼쳐 흥보가 중 '두 손 합장' 대목을 부른 황시원(인천마장 초5) 어린이가 대상의 영광을, 김나연(중앙대부속초3)어린이가 최

우상을, 정우연(남원용성초4)어린이가 우수상을 각각 차지했다. 황시원 어린이는 지난 '제34회 전주대사습놀이학생전국대회'에서 입상하기도 했으며 소리를 배울 때가 가장 좋고 앞으로도 판소리 명창의 꿈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대회의 심사위원장을 맡은 최동현(군산대) 교수는 "전국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어린이들이 참가하는 전국어린이 판소리 왕중왕 대회는 그 명성만큼 참가자들의 기량이 출중해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다"며 "대상 수상자뿐만 아니라 소리 쏘나무들 모두가 더욱 실력을 쌓고 국악계를 한층 더 이끌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우정 군수는 "전국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 대회가 판소리의 고장 고창군의 위상을 높이며 판소리 쏘나무를 발굴 육성해 우리 전통과 국악의 올바른 계승을 해 나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오수휴게소, 서비스대상 우수상 수상

고객만족도 우수사례 선정

오수면은 (주)이씨엘디가 운영하는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오수휴게소(소장 황기홍)가 '2016 휴게소 서비스대상'에서 지역과 상생하는 고객만족도 우수사례에 선정돼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임실군청, 오수휴게소는 MOU를 체결하고 임실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치즈홍보체험관'을 건립해 특산물인 임실치즈의 제작과정을 방문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특산품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임실치즈홍보체험관 서비스 사례'를

통해 지난 11일 우수상을 수상했다. 황기홍 소장은 "모든 직원이 합심해 지역과 연계한 서비스 개발로 지역발전과 휴게소 매출이 향상됐다"며 "38%에 달하는 높은 고객 만족도를 위해 노력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고객 만족을 위한 우수서비스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6년 휴게소 서비스대상'은 한국도로공사 주관으로 휴게소시설별 자율적 서비스 향상을 통한 고객만족도 증가에 목적을 두고 전국 휴게소를 대상으로 고객만족우수사례를 평가하는 대회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음주폐해예방 캠페인 실시

임실군은 15일 '제8회 11월 음주폐해 예방의 달'을 맞아 지역사회의 잘못된 음주문화 및 음주폐해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관촌터미널과 시장을 중심으로 음주량이 증가하는 연말에 비탄직한 절주문화를 주제로 '술잔은 가볍게, 귀가는 빨리, 음주도 스마트시라!'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진행됐다. 가상음주요금체험 음주 위험성 홍보,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K), 에탄올패치를 이용한 음주위험체질 검사를 통해 음주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심어줬다. 또한 건강생활실천(영양, 절주, 운동, 비만예방), 흡연폐해 인식강화 및 금연클리닉 운영,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생명사랑지킴이 서명운동, 올바른 잇솔질 교육, 구강질환예방 생활태도 홍보 등도 병행했다. 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자나친 음주는 알코올성 간질환, 치매 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가정폭력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 한다"며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상대를 배려하는 바람직한 절주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공공비축미 매입 현장 방문

순창군이 지난 7일 적성면 고일2호 창고를 시작으로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을 매입하고 있는 가운데 황숙주 순창군수가 15일 매입 현장을 찾아 유래 없는 쌀값 폭락으로 시름에 빠져있는 농가들을 격려했다. 이날 공공비축미 매입은 인계면 도룡창고, 풍산면 반월창고, 팔덕면 용산창고에서 진행됐다. 황군수는 농민들과 약속하며 풍년 농사에도 쌀값하락으로 걱정이 많은 농민들의 마음을 듣고 소중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매입은 이달 20일까지 진행되며 각 읍면별 정부양곡 보관창고 23개소에서 43회에 걸쳐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15818.079가마(40kg)를 매개해 된다. 2016년 매입품종은 신동진과 새누리 2종류이며, 매입 당일 40kg 1가마당 특등급 46,480원, 1등급 4만5,000원을 농가에 지급하고, 수확기(10~12월) 산지 쌀값조 사결과에 따라 최종 매입가격이 내년 1월 확정되면 차액을 정산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의료원, 중환자실 감염관리

국내자료에 의하면, 의료관련감염의 20% 이상이 중환자실 입원환자에서 발생하고 중환자실 입원환자의 1/3이 예상치 못한 합병증을 경험하며, 이러한 환자의 사망률은 40%를 넘기 때문에 병원에서 중환자실 감염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는 2006년부터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전국병원감시체계(KONIS)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현재 전국 종합병원과 대학병원 195개 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중환자실 의료관련감염 발생률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전북도 남원의료원도 2015년부터 질병관리본부 정책연구 용역사업 '전국 중환자실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 운영관리'에 동참해 중환자실 감염관리를 적극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2016년 11월 11일에 헌신적인 지원과 협조를 인정받아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에서 수여하는 공로상을 받았다. 전북도 남원의료원 원장 박우영은 "남원의료원은 중환자실 감염감시 뿐만 아니라 담당수술과 흉수불기열수술 감염감시도 참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병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여성단체협,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 성료

24명 군수 표창 수여

순창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인자)가 주관한 제21회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가 15일 순창군민복지회관 향토관에서 진행돼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황숙주 군수를 비롯해 김중섭 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여성단체 회원 및 읍면 지도자, 다문화가족 등 500여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에 공헌한 유공자를 발굴하고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를 실시해 양성평등사회 분위기를 조성 및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해 추진했다. 기념식에서는 순승진 대한직업사자 순창지구협의회원 등 24명이양성평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군수 표창을 수여했다. 또 최근 방송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유인경씨가 매력적인 사람들의 공통

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사로 나서 참석자들의 열띤 호응을 이끌어냈다. 양성평등 사진 및 포스트 전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폭력방지 홍보캠페인 등 부대행사도 이날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황숙주 군수는 "많은 여성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제21회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가 열리게 된 것을 축하 드린다"면서 "양성평등은 이제 가정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꼭 선행되어야 할 전제조건이 된 만큼 지역사회에서 실질적 실현을 위해 다짐해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식후 행사로 클린순창 실천결의 대회와 녹색생활 실천 퍼포먼스도 진행돼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한편 순창군은 양성평등과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를 위해 여성전용 화장실 구축, 다양한 여성 친화공간 운영, 교육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